



[산업] 행복ICT 인프라 에코사업 발달장애인 자립 도와 05



Economy

코스피	2129.74 (-0.88)	코스닥	696.00 (+5.47)
금리 (연고채 3년)	1.48 (+0.01)	환율 (원/달러)	1158.80 (+4.10) (1일)

# 경제로 번진 외교갈등... 日 “수출규제”, 韓 “WTO제소”

日, 4일부터 핵심소재 3개 규제  
성윤모 장관 “국제법 통해 대응”  
업계 “정치갈등, 경제로 번진 것”

반도체 업계가 이번에는 일본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됐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주요 소재를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면서다. 당장 반도체 생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라는 분위기도 이어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DP) 등 부문에 쓰이는 품목 3개에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3면)

구체적인 품목은 포토레지스트와 에칭 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다. 일본이 70%~90%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 독점 분야다. 국내와 미국에서도 생산할 수는 있지만, 비용과 성능 문제로도 입까지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4일부터 해당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해 계약별로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절차는 3개월여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결정한 이유는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에 대한 피해자 보상 판결 때문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일본제철 등에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후 일본은 시정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네번째)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왔다. 최근 G20에서도 한일간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업계가 공식적으로는 입을 다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인이 경제가 아닌 정치적 갈등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소재라서 시급한 사안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정치적인 갈등으로 벌어진 일이라 일단은 현실화되기 전까지 지켜봐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 상황점검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 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美中분쟁·반도체부진에 수출감소 7개월째

6월 수출 전년비 13.5% 급감  
3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반도체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한국 수출이 7개월 연속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5% 줄어든 441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1월 19.6% 감소 이후 3년 5개월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세계교역이 위축된 영향이 컸다. 또 반도체·석유화학·정유산업의 글로벌 업황부진으로 수출단가가 급락한 탓도 컸다. 반도체 단가는 33.2% 하락하고 석유화학 단가도 17.3% 떨어졌다.

특히 중국의 성장둔화 지속에 따라 대중 수출은 24.1% 감소하면서 2009년 1월(-38.6%)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5.5%), 석유



화학(-24.5%), 석유제품(-24.2%)이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선박(46.4%)·자동차(8.1%)는 수출이 증가했다. 바이오헬스(4.4%)·이차전지(0.8%)·전기차(104.3%) 등 신(新)수출동력 품목도 호조세가 지속됐다.

대표적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지난 5월 -30.5%에 이어 -25.5%로 수출 급락이 계속됐다. 메모리 단가 하락,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의 데이터센터 재구조정, 스마트폰 수요 하락, 지난해 호황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석대성 기자 bigstar@

社告

metro경제

## fftk 2019

Future Food-Tech Korea

### 푸드테크 혁신시대, 글로벌 푸드 투자전문가 한자리에

중요로워진 세상과 기술의 발달은 더 맛있고, 안전하고, 보기에 좋은 먹거리를 선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와의 컨버전스는 식품이 문화는 물론 산업과 과학의 중심에 서게 했습니다. 앞으로 식품은 미래기술(IT, BT, NT)과 만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식품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창조자(Value-Creator)입니다.

2019 Future food-tech Korea는 미래 식품시장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향 및 지속가능한 미래식품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장입니다. 미래의 식품 트렌드를 알고 새로운 기술과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구상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물류, 옴니채널, 소셜미디어, 브랜드 및 디자인 확장을 통한 글로벌 방향도 제안합니다. 새로운 식품 이노베이션을 주도하는 혁신적 스타트업 인사이트 공유와 식품산업의 성공적인 트랜스포메이션 모델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메트로미디어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19 Future Food-Tech Korea (FFTK 2019)
- 주 제 : 미래 식품시장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 일 시 : 2019년 7월 11일(목) 14:00~17:00 (한·영 동시통역)
- 장 소 :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
- 기조강연 : 세스 배넌 글로벌 푸드테크 투자전문기업 ‘Fifty Years’ 창업자
- 세션강연 : 윤효정 CJ제일제당 식품연구소 플랫폼센터장  
신디 오우 듀폰 뉴트리션&바이오사이언스 규제 및 제품관리 총괄본부장  
김기봉 글로벌네트웍스(미트박스) 대표이사  
이영희 스낵포 창업자&대표
- 문의 및 참가신청 (02)721-9841, 이메일 : forum@metroseoul.com (02)6020-6833, 이메일 : spring@acres.co.kr
- 참가 등록 : <https://sites.google.com/a/acres.co.kr/fftk2019/>
- 참가비 : 11만원(학생은 무료, 단 학생증 지참)
- 주 최 : 메트로미디어
- 주 관 : ㈜에이커스

metro

## 코스닥 개미 잡은 ‘바이오 리스크’

바이오 리스크가 또다시 코스닥 시장을 흔들고 있다. 바이오기업은 작은 소문에도 주가가 휘청인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보가 늦은 개인투자자(개미)가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 정보 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의 84개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구성된 제약업종 지수는 최근 1주일(6월 24~28일) 동안 5.66% 하락했다. 해당 기간 제약업종 지수의 시가총액은 30조 220억원에서 28조 3260억원으로 1조 6960억원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닥 전체 시총 감

소액(10조5860억원)의 16.02%에 달하는 규모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주가 하락이 코스닥 전체 시장을 휘청이게 만든 이유다. 코스닥지수도 한 달 전으로 돌아갔다.

◆ 에이치엘비·메지온 리스크  
바이오 리스크를 촉발한 기업은 에이치엘비다. 에이치엘비는 지난달 27일 기업설명회에서 신약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3상 시험 결과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이번 결과치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신청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란 취지의 발표를 했다.

<8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